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8월 29일 수요일 (음 7월 19일) 제2119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국립 지덕권산림치유원 조성 본격화

전북도-산림청-진안군, 협약 체결 2022년까지 완공기로 한방특화 힐링 치유로 서남권 국민들의 건강증진 기여

대한민국 서남권 국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국립 지덕권산림치유원 조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됐다. 특히 국립 지덕권산림치유원은 국가가 전액 운영비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한의학으로 특화된 치유원으로서 지역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전북도는 28일 산림청, 진안군과 진안군 백운면에 조성되는 국립 지덕권산림치유원을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

하기로 했다. 지덕권 치유원은 올해 기본조사 및 설계를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핵심시설지구, 연구개발지구, 산림휴양·숙박지구와 산림치유지구 등으로 조성된다. 이번 업무협약은 3개 기관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덕권 산림치유원을 조성하고 서남권 산림치유 선도모델로 만들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이날 3개 기관은 지리산·덕유산 권역의 우수한 산림자원과 지역문화를 기반으로 지덕권 산림치유원을 조성

함으로써 숲을 활용한 국민건강 증진과 국토 균형발전에 함께 이바지하기 위하여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지덕권 산림치유원 추진협의체 구성·운영 ▲예산확보와 토지매입 및 인·허가 등 협력 ▲기반시설 조성과 연계사업 추진 ▲한방특화 장기체류형 산림치유서비스 개발 및 운영 연계 ▲지역사회 중심의 산림치유 거버넌스 구축·운영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단 운영인력 지원 등에 대하여 협의했다. 지덕권 치유원은 2013년에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확정된 이후 5년여 기간의 노력 끝에 사업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이번 치유원 조성사업 업무협약 체결은 과거 국립공원 조성계획으로 예타 통과 후 기재부의 반대로 난항을

겪던 사업이 전북도가 산림청, 진안군을 비롯해 도내 정치권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여 서남권 국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출발을 하게 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앞으로 지덕권 치유원은 진안군 백운면에 위치하게 되며 한의학 관점의 산림치유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번 협약을 통하여 지덕권 산림치유원이 호남권 메카로 조성되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또한 지역사회 중심의 산림치유 거버넌스 구축을 통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과 함께 지역관광인프라 구축, 농·특산물 판매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가야고분군을 세계유산으로 28일 경남도청에서는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 공동추진을 위해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중진 문화재청장 등 3개 광역단체장과 이환주 남원시장, 박용환 고령군수, 허성근 김해시장, 조근제 함안군수, 한정우 창녕군수, 백두현 고성군수, 문준희 합천군수 등 기초자치단체 7개 시장·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 추진 협약식이 열렸다. <관련기사 2면>

“경제정책 흔들림없이”

문 대통령, 국무회의서 강조 “혁신성장·공정경제 등 3대 기조 함께 추진해야”



토론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라고 할 수 있는 소득 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는 반드시 함께 추진돼야 하는 종합세트와 같다”며 “혁신성장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것이고, 소득주도 성장은 살하는 사람만 잘사는 게 아니고 함께 잘 사는 성장을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기도 하며, 우리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가 없다”며 “혁신 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은 공정경제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과거 경제 패러다임은 결국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했고, 극심한 소득 양극화와 함께 불공정 경제를 만들었다”며 현재 경제정책 기조의 흔들림 없는 추진의 당위성을 과거 정부 경제정책의 실패에서 찾았다.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의 대표 정책으로 평가받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사람중심 경제라는 새 패러다임으로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향하는 시대적 사명”이라며 “그런 사명감으로 정부는 우리 경제정책 기조를 자신 있게 흔들림 없이 추진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7회 국무회의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렇게 밝힌 뒤 “물론 우리 경제정책 기조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더 다양하게 모색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영상 축사를 통해서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를 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요즘 우리 정부 경제정책 기조 특히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논쟁 뜨겁다”면서 “저 성장과 양극화의 과거로 되돌아가지는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우리 경제정책의 부족한 점과 보완 대책을 함께 찾는 생산적

김승일 행정부지사, 군산·익산 호우 피해현장 방문

전북도 김승일 행정부지사는 28일, 호우로 농작물 침수 피해가 발생한 익산 및 군산 소재지의 피해농가를 방문하여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승일 부지사는 군산시의 익산시로부터 호우에 따른 대처사항을 보고 받고 피해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피해조사에 철저를 당부했다. 또한, 피해조사를 신속히 실시하고 고용재원을 총동원하여 농업인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최소화하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울러 예측이 어려운 기상이변으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술력과 인력을 총동원해 위험에 대한 대책마련을 지시, 농업재해 담당자를 만나 농가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전했다. /김진성 기자

자동차 제조사 리콜 지연시키면 과징금 기준치 2배

이용호 의원, 'BMW 방지법' 발의

자동차 제조사가 리콜을 지연시키고 정부의 자료제출 요구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및 과태료를 최대 10배까지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사진)은 최근 'BMW 방지법'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

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 안전상 결함이 확인되면 제조사는 지체 없이 리콜 조치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그 자동차 매출액의 100분의 1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제조사는 자동차 화재 및 사고, 결함 등과 관련

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최근 BMW 화재 사태에서 제조사가 리콜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자료제출 의무 역시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문제가 되고 있는 EGR 결함에 대해 BMW사가 2016년 이미 인지했던 것이 밝혀지면서 국토부는 리콜 지연 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교통

안전공단은 지난 20일 “BMW사가 정부가 요구한 자료를 회신하지 않거나 주요내용을 누락한 채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리콜·자료제출 제도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는 지점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리콜 과징금을 기존의 2배인 ‘매출액의 100분의 2까지’로, 자료제출의무 위반 과태료는 10배인 ‘1,000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했다. 리콜 과징금의 경우 상한액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매출액에 비례한다는 점에서 금액 자체는 백억 단위 이상 증가할 수 있다. /김진성 기자

매일 INDEX	
3면	- 내년 나라살림 470조
4면	- 노조를 테러범 다루듯

2018 대한민국 대표축제 **축! 전주매일 창간**

www.firefly.or.kr

제22회 자연의 빛 생명의 빛 미래의 빛

무주 반딧불축제

The 22nd Muju Firefly Festival

2018. 9. 1 (토) ~ 9. 9 (일)

무주군일원 남대천, 지남공원 반딧불전통공예문화촌 등

• 주최, 무주군 • 주관, (사)무주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 • 주소, 전북 무주군 무주읍 최북로 45 • 문의, 063)320-5004-17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 환경부 • 전라북도 • 한국관광공사 • 한국문화관광연구원